

1만여 시민 서포터즈·폭염저감 대책 마련

광주시·5개 자치구·11개 기관 세계수영대회 지원계획 보고회 3월 선수촌 완료·6월 전국대회 테스트 이벤트...입장권 판촉

오는 7월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와 수영대회조직위원회, 5개 자치구, 교육청·경찰청·31사단·식약청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 조직위, 5개 자치구, 광주소재 11개 유관기관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종합 지원계획 보고회'를 했다.

지난해 3월, 5월, 8월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이날 보고회는 조직위 준비상황 보고에 이어, 시에서 추진하는 92건의 손님맞이 대책보고, 자치구와 유관기관의 대회 지원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경기장은 5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와 빛고를 전국마스터즈 대회를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해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선수촌은 3월까지 건립을 완료하고 6월까지 은행, 편의점 등 편의시설과 탁구장, 당구장과 같은 위락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체류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수들이 광주의 멋과 맛을 즐기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주변에 푸드트럭과 펍(이동포차)도 설치한다.

선수촌은 광산구 우산동 소재아파트 25개동 1660세대를 활용해 선수단, 취재진 등의 숙소로 제공되며, 1월 현재 공정을 83.5%로 차질없이 건립되고 있다.

주경기장과 선수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진입도로 2개소도 6월까지 확충해 개통

할 예정이다.

또 문화예술 축제, 관광투어 등 풍성한 광주의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도 제공된다. D-100일 등 계기성 문화행사와 대회기간 주경기장과 선수촌에서 전통문화 공연, 전시·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프린지페스티벌 등 공연·전시를 대회기간 집중 운영하고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을 통해 광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수영대회를 위해 1만여 명의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 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도 대회현장에 참여한다. 이밖에 시민 서포터즈는 각 국 선수단 경기를 응원하고 친절한 광주 이미지를 알리며, 자원봉사자는 경기장, 선수촌 등에서 통역, 대회안내를 하며 성공적인 대회 운영의 한축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36일간 지속된 기록적인 폭염이 대회기간에도 발생할 것에 대비해 실

외경기장 차양막, 관람객 동선에 그늘막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폭염저감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대회성공의 가능자가 되는 입장권 판매를 위해 발행량 41만9000매 중 37만매를 사전 판매하기로 하고 각급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다.

설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온라인 이벤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장소에 수라달이 마스코트 조형물을 설치하며, 박태환, 안세현 외 홍보대사를 추가 위촉하고 해외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세계 5대 메가스포츠인 수영대회를 학생 현장체험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상품 개발 및 수영대회 연계 관광홍보, K-POP콘서트 등을 추진하고, 수영연맹은 테스트 이벤트 개최와 중목별 수영 전문가 파견을 지원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남구 봉선동 '노틀담 형제의 집' 준공

9억여원 들여 신개축

광주시는 남구 봉선동 소재 아동양육시설 노틀담 형제의 집 (사회복지법인 형제사 운영·사진) 준공식을 28일 오전 11시 개최한다.

'노틀담 형제의 집' 본관동(지하1층, 지상3층) 신개축 공사는 2017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선정돼 총 9억9022만원의 사업비(국·시비 각 4억9511만원)가 투입됐다. 공사 연면적은 1080㎡로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아동을 위한 자립체험관,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치료실, 방과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됐다. 노틀담 형제의 집은 1986년 건축돼 30년이 넘는 노후 시설이었는데, 이번 신개축으로 아동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앞으로



도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9개 사업 선정 국비 9억원 확보

광주시 북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에서 9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9억 5500만 원을 확보했다"라고 27일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구는 지난 2011년부터 9년 연속으로 사업이 선정돼 지금까지 총 50여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마케팅 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히든-아이디어(Hidden-Idea) 창업 지원', 정리수납 상담사, 아이돌봄 인력 등을 양성해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워킹맘 프렌즈 일자리 창출', 매화를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도심속 매화락(樂) 주민공동체 일자리' 3개 사업이 올해도 연속사업으로 선정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생체의료소재 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 '생체의료소재 인허가 전문 인력 양성', 금융취약계층 상담을 위해 금융분야 퇴직자를 상담사로 양성하는 '금융 솔루션(Solution) 컨설턴트', 시장 내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을 도출하는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 실현을 위한 창업펠로우'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북구는 2월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수행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동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등 9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희 기자 kimyh@

이용섭 시장 '희망 토크'...민생업무 최일선 직원들과 소통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5일 시청 3층 협의회실에서 장애인 복지, 5·18민주화 운동 보상, 버스·택시민원 등 민생업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희망토크' 시간을 가졌다. <사진> '희망토크'는 이 시장이 직원들과의 소통과 교감을 위해 지난해 9월 처음 시작한 이래 4번째를 맞았다.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면서 공식사회에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희망토크 자리에서 건의된 정보 임용장 간소화, 주간업무보고 개선, 육아·저출산 감사 초빙, 출산·육아 교육 편성, 출산축하선물 지원, 전문대체인력 확보, 효율적인 사무공간 재배치 등이 적극 반영되면서 시정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은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격무·기피부서 결원 우선 충원 ▲소수직렬 전입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전환원 등에 대한 공직자 보호제도 마련 ▲초과 근무시간 저축제 도입 ▲전문업무 자문관 또는 멘토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125억 투입 도로 253km 정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부터 125억원을 투입해 무진대로 등 69개 노선 총 253.62km를 정비한다.

7월에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포장덤퍼우기 30억원, 차

선도색 15억원 등을 추가 확보해 주요 관문도로(무진대로 등 26개 노선)와 경기장 주변(점단과기로 등 17개 노선) 총 43개 노선 도로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회 기간 광주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참가 선수들이 경기장을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할 남부대학교, 영주체육관 등 수영대회 경기장 주변(빛고을대로 등 75 곳) 도로이정표를 전면 수정한다.

시는 수영대회 개막전인 6월말까지 주요 관문도로와 경기장 주변 도로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일부 공사는 야간과 주말에 공사를 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지속가능한마을 활동가 1월 간담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는 오는 29일 광주시청 사무실에서 지속가능한마을을 활동가 1월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마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장기적 지원을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통한 마을의제발굴과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해 각 마을별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지속가능한마을은 '한세봉두레', '하남종합사회복지관', '농성1동주민자치협약체', '십시일반나눔마을학교' 등 4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29일에 열리는 이

번 간담회에서는 오는 2월에 개최될 예정인 지속가능한마을 사업 평가 및 성과 보고회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애로사항 공유, 사업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성1동주민자치협약체 정선희 활동가는 "활동가 간담회가 1월을 시작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된다"며 "간담회를 통해 우리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과의 소통, 협의와의 유연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속가능한마을은 올해 사업 3년차를 맞이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인 660명 대상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월 22일까지 11회 강좌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새해 농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달린 농정시책과 새로 개발된 신기술·신품종 등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25일부터 2월22일까지 11회에 걸쳐 행정복지센터, 지역농협 등에서 농업인 6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친환경 벼, 원예작물, 도시농업, 축산(양봉) 등이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최신 연구 동향, 영농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해결 등 분야별 핵심사항을 전달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은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포함해 강의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QR code and text: **에나방** 광주일보 문화예술계간 **NAVER** 블로그 에서 구독하세요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등)**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11억(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은**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

문의. 010-6834-7400